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5.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2014. 03. 3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3장에 계시된 사건을 살펴겠습니다. 아마도 몇 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 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1,2]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2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13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네요.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 5,6장의 일곱 인, 8~11장의 일곱 나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 대한 계시라고 하셨지요. 12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답: 13장은 12장 끝의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12장 끝에 용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는 바다에서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당연히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보존하게 되었는데요, 용은 이제 그 남은 자손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계락을 꾸며야 직성이 풀리지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조합된 짐승입니다. 모자이크 짐승입니다. 어떤 짐승을 조합했을까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고 한 발을 들고 있는 곰, 머리가 네 개이고 새의 날개 네 개가 달린 표범, 이는 철이고 발톱은 놋이고 머리에 뿔이 열 개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네 마리 맹수가 계시로 보였습니다. 그런 짐승이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차례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자의 입, 곰의 발, 표범의 몸에 머리가 일곱 개 머리에 뿔이 열 개가 달린 괴물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모자이크한 것이 확실하지요.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의 머리를 합하면 7개가 됩니다. 이런 괴물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니엘서의 바다는 바람이 부는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는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나오는 광경을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2. 바람이 부는 것과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 예, 성경 예언적 상징에서 바람은 전쟁이나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바

다는 나라간의 전쟁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말했고, 입에서 토하는 물 아니고, 그냥 많은 물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짐승은 나라를 표상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많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쟁을 해서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는 유럽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 땅은 아직 나라들이 건국되지 않은 한적한 지역 남북 미주를 표상한다는 것도 설명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즉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벌리는 유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건국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의 입과, 페르시아의 발과, 헬라의 몸통과 로마의 뿔,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3. 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말합니까?

답: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맹수가 바로 그 네 나라를 표상하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만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CD를 청해서 다니엘 7장 공부를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4. 예, 다니엘서를 말씀하실 때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의 특정 부위를 모아서 모자이크 되었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즉 입이 사자의 입이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입은 바벨론적이고 발은 페르시아적이고 몸은 헬라적이고 뿔, 즉 권세는 로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 곧 이 나라는 이런 부위의 기능을 행사한다는 그런 뜻인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군요. 또 이미 설명도 하셨네요. 이 짐승은 전쟁 없이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입이 바벨론적인데, 입은 말하는 기능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이 바벨론적이라는 말입니다. 5,6절에 입의 용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이것이 사자의 입, 곧 바벨론의 입입니다. 발에 대하여서는 7절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우는 것은 행동에 속하는 것인데, 페르시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곰의 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헬라인데, 헬라문화가 이 나라의 몸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입이나, 발이나 열 뿔이나 그것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헬라 사상인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열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서 취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제국로마와 같은 권세를 행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열 뿔인가? 첫째는 다니엘 7장의 제국로마의 권세를 가진 것을 나타내고 또 로마영토 안에 구성된 게르만 민족의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에 충성하는 상

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5. 목사님 설명이 어렵지 않네요. 그냥 읽으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구절절이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 그렇게 하지요. 먼저 1절 2절의 말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깨닫는 길로 가봅시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다는 바람이 없는 바다입니다. 이것은 설명한 것이고 예언에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 7:17과 23을 보면 확실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은 12장과 관련되어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12장에 붉은 용과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같은 성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두 짐승은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섯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것이 같고, 둘째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고, 셋째 목적이 동일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같고, 넷째 둘 다 경배를 받으려는 것이 같습니다. 다섯째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의 예언적 기간이 같습니다. 여섯째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조합니다. 그래서 13장의 짐승은 12장의 붉은 용의 변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습니다. 12장의 용의 머리에 있는 열 뿔에는 면류관이 없고 일곱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계시적 형상은 역사성을 나타내는데, 일곱 머리도 일곱 왕국이고 열 뿔도 열 왕국입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보는 때에 일곱 왕국은 이미 왕권을 누린 일이 있는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열 뿔은 아직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왕국들, 즉 장래에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열 뿔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의 조합짐승으로 표상된 나라가 세상에 일어날 때에는 열 뿔로 상징된 왕국들이 왕권을 누리고 있거나 누렸거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 예, 그렇게 상징이 되는군요. 참 묘한 계시적 예언입니다. 거기까지가 1절이고 2절은 이미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더 설명할 말씀이 있는지요?

답: 1절에도 그 머리에 참람된 이름들이 있다고 했네요. 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뿔보다 큰 왕국을 뜻합니다. 일곱 머리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의 머리수를 합한 것이라고 했지요. 이 나라들의 근본 성질이 신성 모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조합된 짐승은 바로 그 일곱 왕국이 주장했던 신성모독적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블라스페미아”인데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짐승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를 설명했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 구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았지요. 이 조합된 짐승으로 상징된 이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상

에서 그 권세를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권세를 집행할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블라스페미아, 즉 참람하다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곳만 볼까요?

[요10:32,3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감사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람, 곧 블라스페미아라고 했습니다. 것처럼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단의 보좌에 앉아서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7.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답: 어떻게 모독하는지는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기 전에 5,6절 설명부터 해야 되게 되었네요. 먼저 읽도록 하지요.

[계13:5,6]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이 나라는 하나님을 훼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합니다. 훼방한다는 말은 참람이라는 말과 같은 블라스페미아의 동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도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것을 참람하다고 했지요. 것처럼 이 나라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의 수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독, 훼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자의 입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흔두 달 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흔두 달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고 하니 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이 기간은 벌써 여러 번 나왔지요. 11:2에서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 기간으로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고통 받지만 양육 받는 기간으로 기록된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 곧 거룩한 성을 짓밟고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같은 세력이 이제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를 받아서 세상에 군림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8. 그렇게 설명하시니 짐작이 갑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답: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는 3,4절과 7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면 듣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나라를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을 읽어봅시다.

[계13:3,4]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머리가 상했다고 말합니다. 머리는 왕국을 뜻하지요. 일곱 머리는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의 머리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 마리 짐승이 조합된 이 짐승은 짐승 자체로서 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 일곱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인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네 짐승, 즉 네 나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는 것은 이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 자체가 상하였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고 회복이 되자 상처를 입기 전보다 더 세상에 환영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세상이 이 나라에 경배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배후에서 용이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세상에 이 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다. 아무도 이 나라와 더불어 싸울 나라가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말은 누가 이 나라와 같은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닮은 말인데요, 12장 공부할 때 미가엘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자기의 대리자를 세우고 누가 그와 같은가라고 말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삼위하나님의 한 분께서 미가엘이라고 하셨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여 루시퍼의 참람된 정신을 타도 했지요. 사단이 그것을 흉내 내어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훼방하고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훼방한 것입니다.

9. 그러면 이 나라는 결국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항하는 나라인데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사람은 육안이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아주 무시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지식과 연구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훼방합니다. 크게 두렵지 않지요.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훼방하는 말을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훼방하는 일에 담대합니다. 일제 때 일본 당국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자 잡아놓고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라는 유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천황이 성경의 하나님보다 높다는 참람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때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죽는 일이 생겼다면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오래 참으십니다. 이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말로 훼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주실 때에는 이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실현하는데 엄청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면서 세상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독생자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꾸미는 음모를 적나라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속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따르도록 하려고 그 음모를 이렇게 폭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10.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했습니까? 만일 그 나라가 지금도 세상에 존속하고 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국에는 문명이 거의 없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답: 예, 참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예언을 공부할 때 셋째 나팔 사건 때에 햇불처럼 불타는 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햇불처럼 불탄다는 말은 참 암시하는 바가 큼니다. 밝은 별처럼 세상에 떨어져서 생명의 물줄기를 모두 썩이 되게 했는데, 그 역사적 시기가 아직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문맹인 시대입니다. 그때 정교가 연합하여 정치 지도자나 교회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면서 그들의 주장을 교리와 신조로 교회 안에 정립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짐승은 몸통이 헬라 아납니까. 이 나라는 사상이 헬라적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교회의 진리처럼 정립되었고, 당연히 영원지옥설이 따라 들어왔고, 다음은 제7일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교리로 정립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직책을 계급화 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신부 등, 교회의 직책은 완전히 봉사직책입니다. 이것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성경의 근본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되었고, 이런 구조 안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문화에 교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요.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단호히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이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죄했지만 사형권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치권력이 있었으면 빌라도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불처럼 타는 별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면서 교회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종교 재판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주장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을 단호히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 속에 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문명국이나 문명인도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1. 그렇게 설명하니까 13장의 이 묘하게 조합된 괴물로 표상된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넉넉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되는 구절을 살피면 꼬집어 어느 세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7절 8절을 설명하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먼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6~9절을 읽도록 하지요.

[계13:6~9]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

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6절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이야기할 때 잘 연결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6절부터 읽었습니다. 7절은 이 나라가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기록은 이 나라가 경배를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휘방하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12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한 사실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싸웁니다. 남은 자들은 진리를 말씀대로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를 고수하면 이 짐승이나 용이 경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요. 남은 자손은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 핍박은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교리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주관하는 조직에 의하여 극심하게 이를 것입니다.

12.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3장에 엄청난 비밀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절 말씀대로 들을 귀를 주셔서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엄청난 기만에 속지 않고 진리의 정로를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